



5월 FOMC:

당장 기대는 미충족, 향후 노이즈는 축소

미국 연준은 5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인상하며 시장기대에 부합. 기자회견 도입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최근 은행 사태에 대한 코멘트 있었음.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며, FOMC의 역할을 적절한 규제/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며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조금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언급

FOMC 기자회견 이후 추가 하락, 금리인상 중단 논의에 대한 시장 기대 미충족이 배경

시장 반응은 FOMC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하락 전환. S&P500과 NASDAQ 지수는 기자회견 중 하락전환하여 각각 전일대비 0.70%, 0.46% 하락. 이유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기자회견 내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보고 판단하겠다는 스탠스로 일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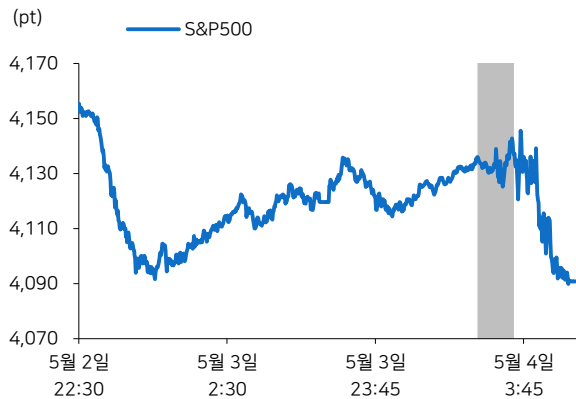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확신보다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스탠스로 일관

기자회견 중 향후 금리인상 궤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등장. 오늘 중단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회의 때마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김. 현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 궁극적으로 충분한 금리인상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움. 6월 회의에서도 여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을 반복

이번 금리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단서들이 등장했다는 점 주목, 인상 중단 언급 없던 점은 오늘 시장 반응으로 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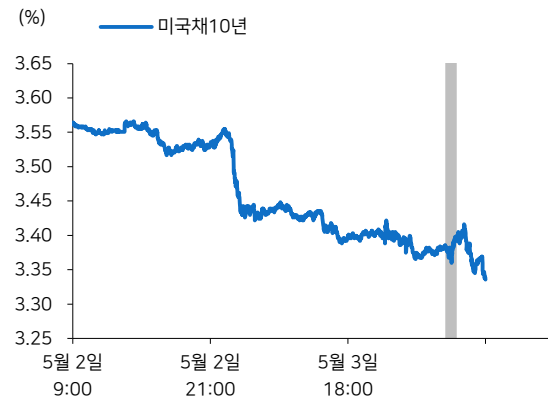
다만 기준금리 인상 관련 문구가 바뀐 점 등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단서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동결 의견은 유지(5월 4일자 이승훈의 경제脈 참고). 금리 하락, 달러 약세는 향후 금리 동결가능성을 반영했다는 견해. 다만 FOMC 직후 CME Fed Watch는 6월 25bp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반영. 이번 추가 반응은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했으나, 향후 연준 결정과 시장기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 그렇다고 할 때, 인상 중단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오늘 시장 반응으로 소화되었다는 판단. 향후 관련 통화정책 노이즈가 지속되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

그림1 장종 S&P500 추이: FOMC 직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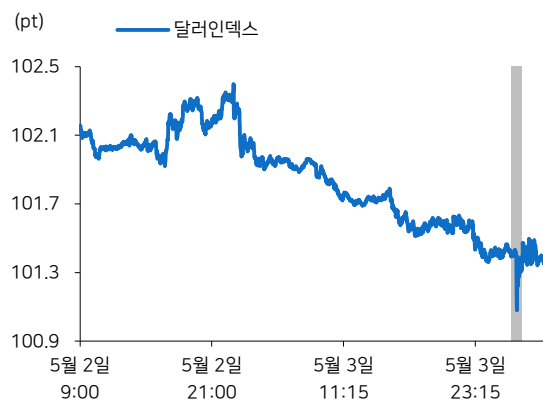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채 10년물은 전일대비 9b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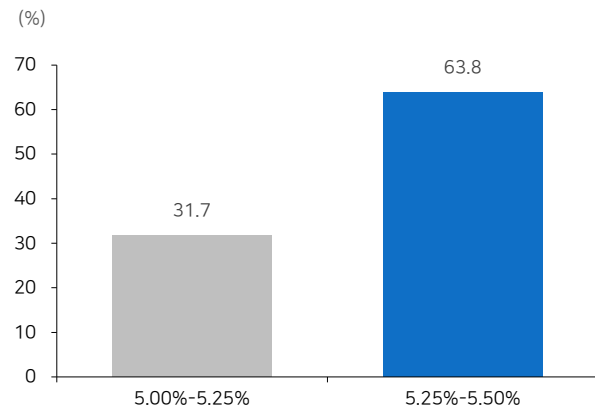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6%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FOMC 이후 CME Fed Watch는 인상 가능성 반영 중



자료: CME Grou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